

『海國圖志』에 나타난 魏源의 世界認識 研究*

金泰萬**

【목 차】

1. 頹落하는 淸國
 - 1) 영국주도의 세계경제 재편
 - 2) 아시아를 향한 해양세력
2. 憂國之士, 魏源
 - 1) 생애와 사상
 - 2) 經世思想과 夷夏論
3. 兵書『海國圖志』
 - 1) 制夷-悉夷-師夷
 - 2) 제국의 도발 : 아편금지냐, 통상금지냐?
 - 3) 무력 : 통상에 대한 욕망의 시작
4. 防禦 : 攻擊과 通商의 二重奏
5. 中國夢의 萌芽

1. 頹落하는 淸國

19세기 중엽, 청조는 鴉片戰爭 패배의 결과로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아편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天朝上國”이라 자칭하면서, “天子의 國家인 淸에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물산이 넘치도록 풍부해, 원래부터 외국 오랑캐들의 물건을 빌려오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모자라거나 남는 것을 상호 변통할 수 있다”¹⁾라 自高自大하면서 빗장을 걸어 잠근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중국 境外의 국가들을 “오랑캐의 땅(蠻夷之邦)”,

* 본 논문은 「第11屆海港都市國際研討會」(2015년 4월 25일, 大北臺灣)에서 발표되었고, 회의에 참여했던 徐興慶(臺灣大學), 劉序楓(中央研究院), 紀麗眞(中國海洋大學) 등으로부터 받은 질문과 조언을 반영했음을 밝혀둔다.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동아시아학과 교수 (ktm2170@gmail.com)

1) 『淸高宗聖訓』卷26, 『海國圖志』 p21, 魏源 著, 李巨瀾 評注, 中州古籍出版社, 1999, 鄭州. 이후 『海國圖志』 인용은 모두 이 책에 근거하고 인용은 이 책의 페이지를 의미함을 밝혀둔다.

“教化를 필요로 하는 백성(化外之民)”으로 업신여길 뿐, 외국을 포함한 지구촌 세계에 대해 무지한 것은 물론이고 알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풍조 속에서 당시 중국인은 서양에 대해 무지를 넘어 아무 근거도 없이 경멸하면서 스스로 우월적 편견만 가지고 있었다.²⁾

그러던 清末 중국은 아편전쟁의 패배로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당시까지 만해도 대다수의 중국인은 아직 전쟁으로 초래된 심각한 결과를 감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구가 기획한 거대한 자본시장으로의 포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구 세력이 바다를 통해 중국 대륙으로 엄습해 들어오고 있는 거대한 전환점에 선 중국은 황실 조정에서 민간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건너온 세력이 마침내 중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상상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이처럼 蒙昧한 현실 속에서도 깨어 있던 극소수 사대부들은 “이러한 정의로운 전쟁에서 천조대국이 어떻게 섬 오랑캐(島夷)에게 패배할 수 있을까? 또한 전후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여 땅을 할양함으로써 빛을 갚아야 하는 형태로 국가의 주권을 잃고 치욕을 감내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³⁾라는 의문에 답을 찾으려 시도했다.⁴⁾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魏源(1794~1857)이다.

魏源은 그토록 위풍당당하던 天朝大國이 손바닥만 한 섬나라 ‘영국 오랑캐’에게 패배한 것에 격분했다. 그러나 격분에 그치고 말았다면 魏源의 위대함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격분을 넘어 차분히 그 연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으려 시도했다. 아편전쟁 패배와 청조 몰락을 예견한 魏源은 “혈기 있는 자라면 마땅히 분개해야 하고, 눈귀가 달리고 지혜로운 심성을 지닌 자라면 기필코 강구하고 기획해야 한다”⁵⁾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비롯해 중국 지식인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중국이 영국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반면 영국은 중국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선박과 정확한 대포가 있어 이것이 중국이 패배한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적을 이기려면 반드시 적의 정세에 달통해야 하고, 적의 사정을 알아야 하며, 그들의 長技를 배워야 한다”⁶⁾라고 대오각성했다. 이점이 다른 지식인들이 따라 올 수 없었던 魏源의 탁월함이었다.

2) 『海國圖志』 p20.

3) 『海國圖志』 p20.

4) 이러한 문제의식은 동시대 동아시아 각국의 지식인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조선에서도 『海國圖志』에 대한 수용이 활발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海國圖志』를 수입한 절대연대는 알 수가 없”으나, 이규경(1788~?)과 김정희(1786~1856)의 기록으로 보아 통상 “1844~1850년 사이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海國圖志』는 海防思想이 강조되어 있고, 또 당시의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개국 또는 개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였으므로 그 영향은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같은 무렵인 1850년 徐繼畬(1795~1873)의 『瀛環志略』이 간행되었다. 『瀛環志略』은 『海國圖志』와 같이 국가정책을 논의한 내용은 없으며, 다만 지도에 대한 정확한 기사를 쓰기 위해 간행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순수한 세계지리서이다. 그러므로 『海國圖志』나 『瀛環志略』의 영향은 개화기에 있어서 세계 지리지식을 넓히는 데 큰 몫을 한 지리서였다. 그리고 조선지도 제작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적다 할 것이다.” 『세계 지리지식의 확대와 지도』, 방동인, 『한국지도의 역사』 p186~187, 신구문화사, 2001.

5) 『海國圖志』 p21.

6) 『海國圖志』 p21.

1) 영국주도의 세계경제 재편

“아편전쟁이란 영국이 對中 무역수지 적자해소를 위해 행했던 鴉片密賣을 금지 당하자 벌인 전쟁이다”라는 결론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비록 아편밀무역이 성행하던 중국 광둥성의 조그만 항구에서 벌어진 ‘전투’이긴 하나, 이는 일찍이 성숙해 가던 서구 자본주의가 아시아·중국으로까지 팽창하면서 일으킨 거대한 문명 충돌의 한 장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중국이 잠자고 있는 동안 서구는 일찍부터 자본주의를 성장시켜 오면서 새로운 원료공급지와 상품 소비지를 찾고 있었다. 이른바 ‘식민과 제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으나 중국은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서구는 이미 산업혁명의 성과로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상품과 시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시기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던 영국과 원료공급 시장인 미국은 대단히 긴밀한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막대한 채무를 축적할 수 있었다. 여기서 확보된 채부가 국제금융 시장을 주도하면서 더 큰 무역 시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때마침 등장한 중국의 차[茶葉]는 영국의 금융시장과 무역확대에 훌륭한 매개로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영국으로 수출한 면화의 대금을 중국에 있는 미국의 商社가 영국으로 갈 중국의 차[茶葉]로 결제하는 방식의 영-중-미 삼국 간 차[茶葉]무역으로 확대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차[茶葉]를 매개로 중국이 서서히 영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체제 속으로 빨려들어 가게 되면서 세계 경제와 무역 네트워크 속에서 독립변수가 아니라 매개변수로 전환하고 있었다.

2) 아시아를 향한 해양세력

대항해 시대 이후 서구는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인도를 거쳐 아시아로 향진해 왔다. 향료와 비단 그리고 차엽을 구매하기 위해 아시아로 향하는 船團이 줄을 이었지만, 貿易이 늘 공정하고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다. 兵船의 호위를 받는 船團은 항상 무력을 앞세워 불평등 무역을 조장했었다. 서구의 선단이 도착한 중국 동남부 해안(粵·閩·浙)은 중앙 정부의 행정과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공간이었고, 늘 해양세력의 출몰로 인해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곳이었다. 新疆 정복으로 확보한 광활한 영토, 그리고 그로 인한 강력한 대일통 시대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는 달리 동남 연해에 관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었다. 즉, 동남연해의 공백은 서구의 해양세력이 도착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해양세력이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힘의 중심이 북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해 왔던 것이었다.

『海國圖志』에 앞서 출간된 『聖武記』에서 魏源은 新疆 정복으로 확보된 광활한 영토와 대일통 위업 그리고 이에 크게 고무된 청 황실에 대해 ‘신성한 무력(聖武)’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청조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황실의 무공을 대대적으로 찬양한 바 있다. 또한 당시 西北史地學이 크게 발흥했던 사실에 비추어 『聖武記』에서 서북지역의 청조편입 과정을 많은 분량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당시 龔自珍, 徐松 등과 마찬가지로 서북지역의 역사 지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현실문제와 연관시키고자 했던 것⁷⁾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단 관료 지식인에 불과했던 그가 청조체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학술저작을 통해 청조의 군사적 위업을 대대적으로 찬양하고자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에게서 이족인 滿洲族이 통치하는 청조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의식 유무 또는 ‘滿漢 일체화’의 정도 등에 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굳이 만주족의 위구르족에 대한 통치에 거부감은커녕 이를 찬양하고 나선 것은 이후에 전개될 夷夏論이 이미 사고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임의 근거를 제시해 준다. 1842년 아편전쟁의 패배로 서구 열강과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만주족 지배체제에 대한 한인들의 불만이 증폭했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魏源은 굴하지 않는 盛世意識과 “師夷之長技以制夷”라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전혀 非脈絡의인 주장을 하게 된 이유의 판단을 알 수 있게 한다.

중국 사회변동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王暉는 최근 저술한 『現代中國思想的興起』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즉, “전통적으로 중국의 사회변동 특히 즉 種族관계, 국가 제도, 경제 제도, 풍속 문화, 이민 구조 등 다양한 요소들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이동·확장·정복이 진행되어 왔고, 무역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것도 외부의 역량에 의한 작동이 아니라 대륙 내부의 역량에 의해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중국 사회는 바다를 건너온 강력한 새로운 세력으로부터 발산되는 거대한 에너지를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즉,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미치는 해양세력의 힘에 굴복해야 했다. 이것은 아편전쟁이라는 역사적 시점에 등장한 서구의 에너지가 중국이라는 자장을 그 전과 후로 분할하는 결정적 대전환점이었다”⁸⁾고 지적했다. 나아가 왕휘는 자신의 논점을 근거하기 위해 미국인 최초로 ‘중국의 내몽고 邊疆’인 서북지역을 방문해 만리장성 주변을 중심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내륙 아시아 연구를 시작했던 라티모어(Owen Lattimore)를 인용한다.

근대 중국의 변강 확장 과정은 사실상 인구 및 권력의 운동이 초기 역사로부터 형성되어왔던 것과는 다른 쪽으로 명확히 방향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향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동력은 공업화의 힘이었다. 이 힘은 외부로부터, 즉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비롯된 공업·상업·금융·정치·군사 등 각 방면에서의 영향에 의해 발전해온 것이었다. 이는 해상으로부터 중국에 가해진 힘이었으며, 또한 그 힘은 연해지역에서부터 작용하기 시작했다.⁹⁾

계속해서 라티모어는 만리장성 주변 세력의 상호작용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면서, ‘前西歐(pre-Western)’와 ‘後西歐(post-Western)’의 두 요인을 구분하면서,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을 새로운 邊疆 관계 조성의 기본 동력으로 보았던 것이다¹⁰⁾. 이런 관점을 받아 안은 왕휘는 기

7) 「청대 중엽 西北史地學 발흥의 배경」, 최희재, 東洋學 第58輯(2015년 1월)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8) 『現代中國思想的興起』(上卷第2部) 第6章, p609, 王暉 著,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4년, 北京.

9) 『現代中國思想的興起』p609.

10) 라티모어(Owen Lattimore)는 1925년 하버드대학 인류학과, 미국 지리학회, 태평양 관계 연구소 국제처 등의 지원 하에 중국 서북 변경과 아시아 질서에 관한 다수의 연구 저작들을 완성하는 등 미국의 중국사 연구에 중요한 전통을 개척했다. 라티모어의 방문과 연구 자체가 해양세력이 깊숙한 내륙 변강까지 침투하였던 증거이다. 라티모어는 만리장성 내·외의 역사 관계에 대해 날카로운 통

존 중국 사회의 지속적 변동이 주로 원양무역 혹은 바다 건너편의 정복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륙 아시아’의 운동 즉 대륙 내부의 북에서 남으로의 운동이었던 반면 ‘해양시대 (maritime age)’라는 것은 유럽 자본주의와 그 해외확장이었다고 증언하면서, “이 세력은 아주 맹렬한 속도로 전통적인 중국의 기제와 행동 방식, 즉 조공관계, 왕조 내·외의 사무를 처리하는 법률·예의·제도 등을 파괴 혹은 약화시켰다”¹¹⁾고 주장했다. 청조의 ‘서북정책’에 의한 공백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위에 바다를 건너 온 새로운 에너지 즉, ‘해양시대의 도래’를 인정한 언술이 아닐 수 없다.

2. 憂國之士, 魏源

“연해지역 문무관원들 모두 오랑캐의 정세에 대해 알지 못했다. 영국이라는 국명에 짐짓 놀라면서도 사실상 그 국가의 내력에 대해 아는 바는 없었다”¹²⁾라고 지적했던 林則徐 역시 나중에 가서야 점차 세계의 진면목을 인식해 가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발발한 아편전쟁은 마침내 굴욕적인 계약 체결로 종결되었다. 전쟁 패배의 굴욕으로 일부의 지식인들 중에서도 특히 魏源은 깊은 사색에 빠져 국외로 눈을 돌렸다.

1) 생애와 사상

魏源을 일컬어 중국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애국주의 사상가라 칭하는 데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청말의 문화 전제주의적 억압과 아편전쟁 패배 후의 침체 분위기 하에서 經世致用的 사상이 점차 퇴조하고 있던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博學於文이란 미명 하에 古書에만 파묻혀 있었다. 미래의 중국을 우환하는 애국주의 지식인으로서 魏源은 침울에 싸여 있던 청 조정을 향해 정면으로 “서양의 우수한 장점을 본받아 배워야 한다 (師夷之長技)”라고 주장했다. 이 명제가 아편전쟁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이후에 얻은 결론이긴 했지만, 당시 중국의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제기할 수 있었던 주장은 아니었다.

『海國圖志』는 세계의 역사와 지리를 다룬 저작이다. 이 책의 장점을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면 이 책은 지리학과 세계사의 형식을 채용해 군사, 무역, 정치 구조, 지역관계 등을 관통하는 복잡한 상호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지리서를 뛰어넘어 世界史書이자 兵書라 칭해질 수 있다. 魏源은 중국이 직면한 도전이 하나의 체계적이고

찰력을 지녔으며, 또한 서구 식민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지녔다. 하지만 민족주의적 관점 속에서, 근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만들어낸 국가 관계 모델을 가지고서 전통 제국의 관계를 관찰하였던 탓에, 현대 중국의 제도, 疆域 인구, 민족 구성, 청 왕조의 내재적 연속성 등을 경시하였다. Owen Lattimore,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New York :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1940) ; *Asia in a New World Order* (New York : Foreign Policy Association, Incorporated, 1942) 참조. 위 『現代中國思想的興起』p610.

11) 『現代中國思想的興起』p610.

12) 『海國圖志』 p21.

구조적인 도전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전쟁과 무역에 국한되어서는 이 도전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믿었다. 또한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의 ‘민주제도’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조직 역량과 동원 역량을 강화하고 거국적인 통일과 엄정한 법률 시행을 이루어내고, 유효한 국제경쟁을 수행할 수 있는 통일된 국가 제도 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랑캐의 장기를 배워 오랑캐를 제어한다(師夷之長技以制夷)”라는 사상과 “법제를 개혁하여 강성을 꾀한다(變法圖強)”라는 주장은 근대 중국사회뿐만 아니라 일본의 에도 막부와 조선의 근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¹³⁾

魏源은 乾隆 59년에 출생해 咸豐 7년에 사망하기까지 嘉慶(1796~1820), 道光(1821~1850) 등을 두루 겪어, 청의 흥성에서 쇠퇴로 저물어가는 과정을 친히 목도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중국의 봉건사회가 반식민반봉건 시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이자 역사상 가장 큰 격동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를 겪은 魏源에게 시대가 끼친 감흥 역시 남달랐을 것이다. 그는 『聖武記·自敘』에서 “호북[荊楚] 이남에 積感之民¹⁴⁾이 있다. 건륭제가 楚國 苗民의 기의를 정벌하기 1년 전 태어나서부터 가정제가 白蓮教徒(1796~1804)의 亂과 해적¹⁵⁾ 토벌을 마치기까지 어언 18년이 흘렀다. 1813년 경기 지역의 天理教 소탕¹⁶⁾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호남성 대표에 선발되어 京師로 파견되었다”라고 기록한 바¹⁷⁾ 있다. 魏源은 건륭 59년 즉, 가정 즉위 2년 전인 “康乾盛世”의 정점이자 동시에 청조가 바야흐로 쇠퇴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출생했다. 건륭 후기에 대신들이 정권을 농단하고 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에 사회의 저류에는 커다란 위기가 잠복해 있었다. 가정이 즉위한 뒤 전반부에는 8년 동안의 川楚 白蓮教의 봉기가 있었고, 후반부에는 林清이 발동한 궁문의 변(宮門之變)¹⁸⁾이 있었다. 도광 시기에, 회족의 난(回疆之亂)¹⁹⁾과 아편전쟁이 이어졌다. 이러한 내우외환은 그의 우국충정을 자극하는 반면 사대부로서의 자존심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함풍시기 太平軍이 발흥하는 등 농민

13) 한국의 경우 최형근의 「동서양 문화의 他者認識에 관한 연구」(강원대 박사논문, 2007), 진명승의 『海國圖志』의 朝鮮開化運動에 끼친 影響」(성균관대 석사논문, 1977), 방동인, 「세계 지리지식의 확대와 지도」(『한국지도의 역사』, 신구문화사, 2001) 등에 조선의 학자인 최한기(1803~1877), 박규수(1807~1876), 윤종희(1803~1886) 등에게 기친 영향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시오노야 도인(鹽谷宕陽)의 『海國圖志 번각』, 히로세 다쓰(廣瀬達)의 『아메리카 총기(亞米利加總紀)』(1卷1冊), 『속 아메리카 총기(續亞米利加總紀)』(2卷2冊), 『아메리카 총기 후편(亞米利加總紀后編)』(3卷2冊), 마사키 도쿠(正木篤)의 『아메리카 총기 화해(美理哥總紀和解)』(1卷1冊), 『아메리카 총기 화해(美理哥總紀和解)』(상·중·하 3책), 마사키 도쿠(正木篤)의 『영국의 총체적 기록과 화해(英吉利國總紀和解)』(1卷1冊), 오노 겐사이(小野元濟)의 『영국 광술(英吉利廣述)』(2卷2冊), 오쓰키 데이(大槻楨), 『海國圖志·러시아 총기·서』, 핫토리 세이엔(服部靜遠)의 『海國圖志 훈역』(상·하), 쓰루미네 도진(鶴嶺道人)의 『국지총론』, 스기키 다쓰(杉木達)의 『아메리카 총기 화해(美理哥總紀和解)』, 난요 데켄(南洋梯謙)의 『海國圖志 주해편 역해·서』 등이 잇달아 출간되었고,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학자 야스이 쉿켄(安井息軒), 오타니 도시오(大谷敏夫), 요코이 쇼난(横井小楠), 기타야마 야스오(北山康夫),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등의 언술에서 해국도지에 대한 찬사를 찾아 볼 수 있다.

14) 감정을 쌓고 있는 백성, 즉 魏源 자신을 지칭한다.

15) 1810년 이전, 蔡牽과 朱潰이 이끌었던 東南 海上起義軍.

16) 1813년(嘉慶 18년)에 淸 政府가 天理教起義를 鎮壓한 것을 일컫는다.

17) 『海國圖志』 p10.

18) 1813년 10월 8日, “紫禁城의 變”이라고도 한다.

19) 1847년 “七和卓之亂”.

봉기의 불길이 중국의 방방곡곡으로 불타올라 중원이건 변경이건 할 것 없이 大清 왕조는 붕괴 일보직전이었다. 이처럼 험난한 세월 속에서 살아온 魏源은 시대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었고, 때문에 불안한 시대에 조용한 사회변혁사상이 탄생할 수 있는 시대적·개인적 조건은 갖추고 있었다.

魏源의 일생에 비추어 그가 습득한 학문적 토양은 그의 사상철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그의 학통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이 논문의 논지 전개에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 여긴다. 청대 경세지학의 중요한 주장자였던 魏源의 학술적 뿌리는 漢·宋에까지 연결되어 있어 단순히 今文經學者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21세 때 胡承珙에게서 漢學을, 姚學塽에게서 宋學을 배웠으며 또 經學大師 劉逢祿과 더불어 『公羊春秋』를 학습했다. 魏源은 류봉록의 ‘公羊變易說’에 크게 감명받은 후 公羊學說을 받아들였고, 이를 바탕으로 古文經學파들과 격렬히 맞섰다. 결정적인 그의 사상적 전변은 스승 劉逢祿을 만나 『公羊春秋』를 공부하고 나서이다. 그는 公羊學說을 주장하면서 西漢 今文經學的 ‘微言大義’를 세상에 밝히고 ‘公羊三世說’의 번역관과 개혁사상을 발휘해 사회변혁을 주장했다. 魏源은 『公羊春秋論』, 『董子春秋發微』, 『兩漢經師今古文家法考』, 『詩古微』 20권, 『書古微』 22권 등의 저술을 통해 공양학설을 전파했다. 동시에 금문경학의 관점으로 유가경전인 『詩經』과 『尚書』를 재해석해 정통적인 위치에 있는 고문경학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는 당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사상해방의 단초를 닦았다. 그것은 당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科擧 추종과 보수적 정통사상의 구속으로부터 탈출해야 했다. ‘三世說’을 주장하고 變易적 『公羊春秋』를 제창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충분한 시대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龔自珍, 魏源에서부터 康有爲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今文經世’ 중에서도 특히 공양학설을 사회변혁의 사상무기로 사용했다.²⁰⁾

魏源은 실용적인 것과의 결합을 강조하면서, ‘道’는 반드시 治國安邦과 민생의 일상 속에서 체현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국정에서 경세치용의 치국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識者는 강을 수비하고 賢者는 바다를 수비하거늘, 절강 지역 소란을 우려했는데 어찌 또 다시 회수 지역이 소란스런고?”²¹⁾라고 우려하면서 “해상 공격과 해상 통상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와 군량과 병사의 재주를 어떻게 귀히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²²⁾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내외외환에 처해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을 魏源이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²³⁾

魏源은 경세치용의 목적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자고이래로 왕도를 실현하지 않고도 부강해진 국가가 있긴 했었지만, 왕도를 실현하고도 부강해지지 않는 국가는 없었다”²⁴⁾라 여기면서, 시대에 맞게 국가를 다스리고 과거의 법제에 얽매이지 말고 시대에 적합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魏源은 청조 통치가 날로 쇠퇴해 가면서

20) 『海國圖志』 p12 및 「魏源年譜」 참조.

21) 『秋興後』 13수, 『魏源集』, 『海國圖志』 p12.

22) 『寶海後』 10수, 『魏源集』, 『海國圖志』 p12.

23) 『海國圖志』 p13.

24) 『默觚·治篇5』, 『魏源集』, 『海國圖志』 p12.

폐단백출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호소하게 되었다. 이렇듯, 魏源의 사상은 동시대 많은 경제와 사상가의 그것과 거의 일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양설 번역관’과 경제사상을 결합해 “오랑캐의 장점을 배워 오랑캐를 제압한다(師夷長技以制夷)”라는 사상을 제시한 사람은 오직 魏源 뿐이었다.

魏源은 우선 역사 속에서 답을 찾기로 결정하고, 고전을 탐독하면서 선조들의 업적 속에서 오랑캐를 제어하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는 낙후한 滿族이 明朝를 따라 배운 뒤 명조를 이기고 천하를 얻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역사 속에서 현재를 반추하며 현실에 적응하고자 했다. 魏源은 아편전쟁의 경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강의 최전선에 두 번이나 참전했던 경험 탓에 실질적인 사정을 일반 사람보다 깊이 체득하고 있었다. 魏源은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영국의 배와 대포가 중국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알지만, 그 뛰어난 것의 핵심이 대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영국의 실체에 대해 어느 한 가지라도 아는 게 없다고 여겼다. 깊은 생각 끝에 마침내 “오랑캐 제압하기(制夷) - 오랑캐 알기(悉夷) - 오랑캐 따라 배우기(師夷)”라는 사고의 맥락을 체계화하기에 이르렀다.

2) 經世思想과 夷夏論

魏源이 세계로 눈을 돌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전통적인 出將入相이나 內聖外王의 사대부 의식이 한 줌도 안되는 섬 나라 오랑캐 ‘영국’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연후에 큰 깨달음을 얻은 덕분이었다. 自高自大로 세상물정에 관심이 없었던 청조의 몰락에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논리가 엄습해 들어오는 현실을 예감한 魏源은 전통적 尊王攘夷²⁵⁾ 관념을 버리고 세상을 수평적인 협상의 대상으로 바라 보고자 했다.

『海國圖志』에서 魏源은 청조 내부가 아니라 청조 외부의 세계를 섭렵하고자 했다. 전통적 夷·夏觀을 뛰어넘어 새로운 內·外觀을 발전시킴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초기 금문경학과와는 달리 세계적 범위에서 내·외관과 이·하관을 새로이 천착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魏源은 『海國圖志』 「原敍」에서 “과거로부터 중국과 교류하지 않았던 지역들도 마치 『一統志』의 지도를 보는 것처럼 그 산천 지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중국 17개 省의 省志를 읽듯이 그 풍토를 살펴볼 수 있다. 어찌 천지의 기운이 서북쪽으로부터 동남쪽에 이르기까지 中·外가 一家가 될 것인가?”²⁶⁾라고 적고 있다. 사람들이 마치 ‘海陸一統’적 세계를 보는 것처럼 지도의 형식을 이용하여 세계가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 만일 제국의 內外一體, 夷夏無別論이 ‘지극히 커서 그 바깥이 없는 제국’의 정치와 문화를 전제로 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새로운 전 지구적 표상 속에서 중국을 본위로 하는 ‘더 이상의 바깥은

25) 尊王論과 攘夷論이 결합된 에도 막부 말기 미토가쿠의 사상으로, 후지타 도코(藤田東湖),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 등이 중심이 되었다. “천황을 세우고, 오랑캐를 쫓아낸다”라는 뜻. 고대 중국의 춘추시대에서 서주 왕조의 천자를 세우고, 영내에 침입하는 夷狄(중화 사상에서의 이민족, 여기서는 남방의 초나라를 지칭)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춘추시대 패자들이 이용한 표어를 막말 국학자가 수입하고 유용한 것.

26) 『海國圖志』 「後敍」, 『海國圖志』 p70

없다' 식의 '無外 관념'은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편전쟁 패배로 인한 불평등조약이 체결된 이후 조정과 사대부들의 인식에도 큰 변화가 일었다. 즉, 원래의 '내·외 관계'의 원칙과 법률을 개조하여 새로운 국제관계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서구를 지향하는 정치 개혁과 지식의 재구성을 위하여 예법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애썼다. 중국 사대부들은 이런 형식의 주권 이외에 자신들의 합법적 자원을 발굴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적 범위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의 전제를 확립해야만 했다. 魏源의 사상 실천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표현이었다. 그는 한편으로 서구의 공업 기술을 배울 것과 자기 방위 능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오랑캐의 장기를 배워 오랑캐를 제압할 것(師夷長技以制夷)”을 주창하는 한편, 자신들의 역사 전통과 세계상을 재구성하고, 중국을 이러한 세계상의 내부에 위치시켜 개괄하고자 했다. 『海國圖志』에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층차의 내·외 세계상은 이런 노력의 표현이었으며, 세계적 지리학의 시야 속에서 중국의 군사·경제·문화 정책 등에 청사진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렇듯, 그의 사상적 기초라 할 수 있는 금문경학의 내·외관은 이런 세계상과 그 권력 관계의 재구성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²⁷⁾

3. 兵書 『海國圖志』

1) 制夷-悉夷-師夷

아편전쟁으로부터 받은 충격은 어떻게 하면 외적의 전쟁도발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해법 찾기로 귀결됐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魏源은 “아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아편을 유통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막는 것”이라 여겼다. 즉, “지금 오랑캐들의 아편이 독을 유통시켜 그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중가르(准噶爾)의 천만 배도 넘지만, 중국의 황제께서 인자하시니 위로는 조상들께 부합할뿐더러 天時와 人事를 중히 여긴다. 길사와 흉사라는 한 쌍의 모순이란 그것 자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어찌 오랑캐를 막아내고 배척하는 일이 하 세월에 기다려도 안된다고 걱정만 할 건가? 어찌 중국의 무기를 펼쳐 보일 날이 없을 거라 한탄만 할건가? 이런 상황에 있어, 무릇 혈기왕성한 자라면 반드시 분격할 것이고,

27) 『現代中國思想的興起』(上卷第2部) 第6章, p620~621. 魏源의 내·외, 이·하관의 기본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문경학의 상대화된 내·외관은 龔自珍, 魏源, 康有爲, 梁啓超 등 금문경학자들이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로 서구를 대면하는 데 주요한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내·외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즉 제국 내부의 예서관계로부터 주권국가들 사이의 내·외 관계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둘째, 내·외 관계의 새로운 모델은 유럽 민족-국가 모델에 대한 단순한 이식이 아니라, 조공관계의 전통적 맥락에 대한 재구성이었다. 셋째, 내·외 관계의 변천은 금문경학의 내·외관에 의해 철저히 폐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개혁과 새로운 민족 정체성 창조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내·외관은 복잡한 방식으로 다민족 주권국가의 틀에 역사적 전제를 제공해주었다. 넷째, 한족 지식인은 흡사 제국 천하를 자신의 소임이라 여기는 듯 하였는데, 이로 인해 초기의 금문경학과 제국의 관점 사이의 긴장관계는 거의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자각했건 아니건 간에, 새로운 시대의 위기를 해석하는 과정은 바로 한족 지식인이 자신을 종속적 지위로부터 사회 주체로 격상시키는 방식과 경로가 되었다.

무릇 감각과 생각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논의하고 기획할 것이다. 위선이나 장식, 환란을 두려워하는 사상 따위는 떨쳐 내고 적폐를 타파하지 않고 목전의 안락만 추구하거나 개인적인 골목대장 노릇일랑 다 폐기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지몽매한 인간의 병을 제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²⁸⁾고 여겼다. 『海國圖志』의 「原敍」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와 배경 그리고 내용이 총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무릇 그들의 지형지세를 잘 파악해야 비로소 외국을 잘 부릴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籌海篇」이 있어야 한다. 작게 쓰면 작은 효과를 얻을 것이요 크게 쓰면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이로써 중국의 위엄과 기세가 세상에 떨쳐질 수 있게 하고자 함이 밤낮으로 희망하던 나의 바램이다.²⁹⁾

왜 이 책을 저술했는가? 답하자면 아래와 같다. 적으로써 적을 공격하기 위해 저술했고, 적으로써 적과 화친통상하기 위해 저술했고, 적들의 선진기술을 배움으로써 적을 제압하기 위해 저술했다.

『易』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과 악이 서로 공격하면 길흉이 발생하고, 원근이 서로 다투면 회한이 발생하고, 진실과 허구가 서로 감응하면 이해관계가 발생한다.”³⁰⁾ 따라서 이와 마찬가지로 적을 상대해 싸우는데 상대의 상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해득실에 있어서 백배의 차이가 난다. 마찬가지로 적과 통상화친함에 있어서도 상대의 사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해득실에 있어서 백배의 차이가 난다. 자고로 적을 제압하려는 자는 적의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것만큼 익숙해야 한다.³¹⁾

이상을 통해 『海國圖志』가 철저히 外賊을 전제하고 쓰여졌고, 나아가 외적을 맞서 싸우거나 외적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외적과의 통상을 위한 방안을 절박한 심정으로 토로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적을 제압(制夷)하려면 우선 적의 상황을 알아야(悉夷)하고 나아가 진정으로 적을 이기거나 통상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적의 장점을 배워야(師夷)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夷夏觀으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관점이었다. 특히 외적과의 통상교섭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이를 통해 아편밀매를 방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탁월한 관점으로 여겨진다.

2) 제국의 도발 : 아편금지냐, 통상금지냐?

魏源의 탁견은 외적의 위력 뒤에 깔려 있는 지식, 군사력, 통상의 힘에 대한 통찰에 있다. 그리고, 당장 아편금지로 인해 외적이 전란을 유발했고 그로 인해 청조의 몰락이 눈앞에 닥

28) 『海國圖志』 「原敍」, 『海國圖志』 p68.

29) 『海國圖志』 「原敍」, 『海國圖志』 p68.

30) 『易經·繫辭』 『海國圖志』 「原敍」, 『海國圖志』 p68.

31) 『海國圖志』 「原敍」, 『海國圖志』 p68.

쳤지만,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통찰과 대안을 내어 놓았다. 외적이 아편을 가져오는 것은 아편판매를 통한 수익으로 무역 역조의 결손을 벌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장구적인 치료 방법은 당면한 아편수입 금지가 아니라 아편무역을 하지 않더라도 무역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라 여겼다. 즉, 鴉片禁輸가 근원적으로 불가한 이유는 바로 아편을 둘러싼 영국, 인도 그리고 중국 간 무역 시스템이라는 점을 간파했다. 아편을 심었던 인도의 토지는 '官地'였으며 아편의 재배와 밀무역은 영국 최대의 수익원이었으므로, 세관 봉쇄의 조건 하에서 아편무역을 근절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대내 관리와 제한 이외에 유일한 방책은 무역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영국과 기타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식, 즉 이른바 “위로는 세금이 부족하지 않고, 아래로는 재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魏源은 영국의 세수 확보와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통상을 유지하는 것이 근원적 해결 방안이라 여겼던 것이다. 魏源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즉, 서양 쌀의 수입세를 감면하고 절강성 湖洲의 生絲와 차 잎 등의 중국 수출 물품의 수출세를 늘임으로써, 합법적으로 권력을 분산시켜 서방 국가에게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밀매 형태의 아편무역을 없애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이것이 바로 “오랑캐와의 화평[款夷]” 정책이었다.

그리하여 魏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건의했다. 첫째, 廣東 虎門 밖의 沙角과 大角 두 곳에 造船廠과 火器局을 설치한 후, 프랑스와 미국의 기술자와 장인을 초빙하여 함선 기기 제조를 관장토록 하고, 서방의 조타수를 초빙하여 함선 운행과 포 사용법을 관장케 하며, 동시에 무역 방법을 개혁하고, 기술 독점을 없애야 한다. 둘째, 軍民과 軍商 간에 제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편으로 서방국가로부터의 군함과 화포의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되, 그 무역의 이익을 가지고 함선과 기계 및 무기를 구입한다. 다른 한편으로 연해 상민이 자원하여 공장을 세워 함선과 기계를 제조하는 것을 허가하여, 자가용으로 쓰거나 파는 것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민간과 국가가 해외 무역과 군사 투쟁 속에서 연맹관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민간 선박은 평상시에는 상업용으로 쓰고, 전시에는 군함으로 개조할 수 있다. 군사 기술은 상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조선창은 군함만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선을 건조할 수도 있다. 이로써 중국 연해 상인과 남양의 무역 관계를 촉진하고, 원양무역을 확장시킨다. 셋째, 군사화, 특히 해군 건설을 중심으로 현재의 정치, 경제, 교육 체제를 개조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사 동원을 위한 시스템을 보장한다. 즉 수로 운송, 교통, 과거, 군대의 건설의 과정 중에 水運과 해상전의 능력을 제고한다.³²⁾

32) 魏源의 목표는 직접 만들거나 구매한 함선·대포와 훈련받은 병사들을 활용해 최종적으로 함선·대포를 직접 만들고 스스로 수군을 훈련 배양하여, 또한 쓸모없는 인력을 도태시키고 군량미를 절약하는데 있었다. 또한 “중국 수군이 해양에서 함선을 물고, 바다에서 洋夷와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魏源의 구체적인 건의는 다음과 같다. ① 운하 운송을 해상 운송으로 바꾸고 또한 전함으로 호송케 한다. ② 수군이 대량으로 인원을 수도로 이동시킬 때 반드시 해상 운송을 이용한다. ③ 상인은 화물 운송 시 관하에 전함 호송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나라에서 시행하는 武生, 武舉人, 武進士 등의 시험과목이 육군 병과(弓術, 馬術)에만 치중되어 있는 상황을 개혁하여, 閩粵에 수군 과목을 증설하며, 또한 함선과 대포의 기능에 익숙한 자를 과거 급제자로 인정한다. ⑤ 수군 장교는 반드시 조선소와 화기공장(혹은 舵工), 갑판원(水手), 포수(炮手)를 거치도록 하며, 전통적인 평가 기준을 개혁한다. 魏源은 영국군, 포르투갈군의 엄격한 규율과 임전무퇴의 용기에 아주

만일 군사전략과 전술을 연구하고 아편전쟁 실패의 경험과 교훈을 총괄하는 것이었다면, 어쩌서 魏源은 이처럼 광범위한 지리학 관점³³⁾과 세계사적 풍경 속에서 그의 전략적 사유를 전개하려 했던 것일까? 특히 왜 ‘兵書’의 내용을 역사지리학적 방식으로 표현하려 했었던 것일까? 魏源이 세계사나 지리학 방식으로 군사 전략을 전개한 것은 아편전쟁 이후 스러져 가는 청조의 위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아편무역이 단순히 중·영 양국간의 단순한 분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중국이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 위기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魏源의 사고 속에서 구체적 군사 전략과 전술이 세계경제체제라는 거대한 구조적 틀 속에서 관찰되고 판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魏源이 우선 지난 수년간 중국과 영국 간에 진행됐던 교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치상으로 엄밀히 분석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국이 공식적으로 수출한 차와 중국이 ‘밀수로’ 수입한 아편의 교역량을 대비하면서 의미 있는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그의 조사는 아래와 같은 리스트를 도출해 준다.

- 康熙 년간 : 약재에 준하는 세금과세로 수입 통제
- 乾隆 30년 이전까지 : 아편 수입 매년 200상자 이내로 제한
- 嘉慶 원년 : 수입 금지 시작
- 嘉慶 말년 : 매년 3,000상자 밀수
- 道光 6년 이후 : 순찰선 배치했으나 순찰선 수병들 영국 아편밀수범들로부터 매월 수뢰
- 道光 12년 : 순찰선 폐지
- 道光 17년 : 순찰선 부활. 4~5만 상자 유입³⁴⁾

도광 17년 사례를 들면 湖絲³⁵⁾ 659만원, 차와 1,400만원 등 2,181만 6천원 영국으로 수출한 반면 중국은 면화 822만원 등 총 1,447만 8천원어치의 상품을 수입해 들여 왔다. 이 교역의 결과, 수출 총 2,181만 6천원에서 수입 총 1,447만 8천원을 제하고 나면 700여만 원의 흑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같은 시기 미중간 수출입 역시 “수출 1,327만 7천원 - 수입 367만원 = 960만원 흑자”였다. 그 결과 대외수출입 총계는 “수출 3,509만 3천원 - 수입 2,014만 8천원 = 1,494만 5천원 흑자”였다.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서구의 장기가 단지 기술의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훈련과 배양에 체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청나라 군대가 서양의 군사 훈련 배양 방법을 배워, 쓸모없는 인원은 도태시키고, 정예병을 보강시킬 것, 충분한 군량미를 확보할 것, 해상 도둑들과 아편상을 잡아 이용할 것, 해적들을 추적 소탕하고 해상 운송을 호위할 것, 해양 진출의 기회를 늘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군과 綠營을 훈련시킬 것 등을 건의했었다. 『籌海篇·議戰』.

33) 즉 한편으로 『海國圖志』를 설명하는 방법론상 실지 고찰과 판본 고증을 상호 결합시키고, 서구 근대 지리학의 성과를 참조하여, 중국의 서구 지리학이 이전에 없었던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책을 근대 중국인이 서양을 배우고, 화하의 자기중심적 관점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한다. 『海國圖志』는 양무운동과 변법유신운동에 대해 모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 두 운동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한 의의 역시 주로 공예 기술에서 제도 문화에 이르기까지 “오랑캐로부터 배운다”는 각도에서 전개한 것이다.

34) 『籌海篇·議款』, 『海國圖志』 p110~111

35) 湖絲 즉, 명청시기 절강 湖州府에서 생산된 蠶絲를 일컫음.

당시 중국이 누렸던 흑자는 외국 상사들이 가히 견디기 힘든 만큼 막대한 금액이었다. 당시 상황에서 서양의 상사들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벌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량의 아편이 밀수입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력한 한 통계에 따르면 함풍 2년(1852)에 2,200만원(4만 상자) 어치의 아편이 밀수입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정상 무역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편밀매를 통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음이 자명했다. 즉, 영국이 중국에서 구입하는 물품 중 차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湖絲이다. 반면 그들이 중국에 수출한 물품 중 제일 많은 것이 아편이고 그 다음이 棉花이다. 만약 아편을 제외한다면 중국의 이익이 막대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中國의 對英 차입 수출 추이>

시기	교역량	교역금액	비고
강희 2년(1663)	100근		영국인이 네덜란드에서 구입
강희 49년(1710)	14만근		
옹정 2년(1724)	28만근		
건륭 24년(1759)	229만근		
건륭 37년(1772)	547만근		
건륭 50년(1785)	1,300만근		
가경 18년(1813)	2,128만근		
도광 2년(1822)	2,376만근		
도광 12년(1832)	3,000여만근		동인도회사 해산 후 판매 대폭 증가
도광 17년(1837)	30여만 석	1,400여만 원	

※ 도광 17년 통계로 미국 12만여 석(369만원), 네덜란드 매년 280만근, 프랑스 매년 23만근 수입.

아편밀매의 폐해는 상상하기 어려우리 만치 심각했다. 魏源은 “서양인의 돈과 재물이 중국에 부와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편 만연 이후 중국의 洋錢과 紋銀³⁶⁾은 하루가 무섭게 폭등하고, 이에 따라 조운 사업과 소금매매 사업 그리고 국경 업무가 하루 다르게 힘들어졌다.”³⁷⁾ 라고 개관했다. 만약 魏源이 아니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군사력 경쟁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魏源은 군사적 상황에 대해 차분히 분석한 이후 정치, 경제, 기타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를 통해 마침내 군사력 경쟁 보다는 협상을 통한 공동 번영의 대안을 제시했었던 것이다.

3) 무력 : 통상에 대한 욕망의 시작

36) 옛날 서양의 은화와 순도가 가장 높은 표준의 중국 순은.

37) 『籌海篇·議款』, 『海國圖志』 p110.

단순히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중국 시장의 자유화 수준과 특정 부문의 발달 정도는 아마 영국보다도 더 나았을 지도 모른다. 다만, 양국 시장의 실질적 차이는 무역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보호하느냐라는 점에 있어서의 차이였을 것이다. 『籌海篇』의 중요한 결론 가운데 하나는 무역 문제는 반드시 군사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호혜평등한 통상 역시 무력에 의한 억지력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魏源의 군사 전략은 ‘방어’와 ‘육상전’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는 해상전의 불가피함에 대해서도 매우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장거리 무역의 고이윤, 항해 기술의 신속한 발전, 서방 국가의 식민지 확장 정책, 영국 세수와 금융 체제의 아편무역에 대한 의존도, 서방 각국이 보여주는 무역과 군사의 긴밀한 결합, 물산이 풍부한 대국으로서의 중국 등.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분석한 후 내린 결론이 곧 해양 각축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따라서 해상전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유럽의 對 아시아 무역은 두 가지 힘 위에 구축되었다. 하나는 대량의 아메리카 白銀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람을 동력으로 다양한 뜻을 사용해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전함이었다. 무역 역조로 인해 백은의 부족현상이 나타나자 마자 곧 바로 군사력으로 아편 밀거래를 보호함으로써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아편 무역 분쟁은 “오랑캐의 장기를 배워 오랑캐를 제압하는” ‘強兵’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와 무역에 대한 군사적 보호라는 제도적 관계를 완비함으로써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랑캐의 장기를 배우는 데” 있어 첫 번째 요건은 “오랑캐의 사정(夷情)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상대방 내부의 상황을 알고 자신의 군사와 상업 비밀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바로 東西 간 무역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한 차이점이었다. 중국은 찾아 들을 정찰 가격으로 명시했지만, 서양 상인은 직원의 상업비밀 누설을 엄금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魏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서양의 오랑캐(外夷)를 제어하려면 우선 오랑캐의 사정을 아는 데서 시작해야만 한다. 오랑캐의 사정을 잘 알고자 한다면, 우선 翻譯館을 세우고, 오랑캐의 서적을 번역하는 데서 시작해야만 한다. 변방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면, 우선 변방의 督撫에 신경 쓰는 데서 시작해야만 한다.”³⁸⁾ 이러한 유추 과정을 거친 오랜 숙고 끝에 魏源은 “오랑캐의 장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군함, 둘째는 화기, 셋째는 군사의 육성과 훈련 방법이다.”³⁹⁾라고 결론지었다. 앞의 두 가지 방면은 군사 기술을 언급한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도와 그 방법을 언급한 것이다.

그의 저술 동기를 종합해 보자면 『海國圖志』가 왜 병서인지 명확해 진다. 『海國圖志』는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한 지리학 지식은 물론 전 세계 각 지역과 국가의 정치, 경제, 풍속, 물산 등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식민주의 시대의 중국의 위치를 확정지었으며, 내륙 제국을 해양시대의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 위치 지음으로써, 대륙 제국의 해양시대 주권 국가로의 전변을 위한 지식 상의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이것이 『海國圖志』가 단순한 지리학 저작이 아니라 하나의 군사 저작⁴⁰⁾이라는 방증이다. 원래 근대 지식 체계 내에서 ‘지리학’의 중요성은 근대

38) 『籌海篇·議戰』, 『海國圖志』 p98.

39) 『籌海篇·議戰』, 『海國圖志』 p98.

세계 체제의 군사적 성격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혹자는 근대 무역의 군사 및 그 기술에 대한 의존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영국 식민주의의 무역은 자연적, 자발적, 사적인 성격의 무역이 아니라, 국가의 군사적 보호 특히 원양 능력을 지닌 해군의 범주 내에서의 무역으로, 영국에 의해 주도된 세계 경제와 결합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그런 점에서 魏源은 특히 동인도회사의 폐해를 주목하면서 동인도회사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즉, 회사는 타국과 통상을 시작할 때 함선과 화포를 만들고, 운하를 정비하고, 포구를 점령하고, 상가를 구축하는데, 이는 일시에 수만금의 비용이 드는 일이라 한두 상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 가능하며, 심지어는 국왕의 자본을 빌려 도모하기도 한다. 따라서 회사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식했다. 이는 영국 식민무역에 대한 정확한 개괄이다. 영국의 대 중국 아편무역은 군사적 보호하의 私 무역의 성격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종의 영중무역을 자본주의 무역 구조에 끌어들이는 강제 행동⁴¹⁾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4. 防禦：攻擊과 通商의 二重奏

『海國圖志』「籌海篇」에는 「議守」(上, 下), 「議戰」, 「議款」 등 총 4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들은 모두 아편전쟁 시기의 군사 경험과 교훈을 검토해, 해양 시대에 외적을 제어하는 전략, 전술과 장기 책략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핵심은 ‘방어[守]’를 중심으로 하면서, 전투[戰], 화평[款] 등의 각기 다른 전술이나 전략을 전개하는 데 있었다. 근대화 이론의 틀 속에서, 『海國圖志』의 ‘병서’로서의 성격은 ‘개혁개방’ 혹은 ‘서구로부터의 학습’ 등과 같은 서사에 의해 거의 완전히 가려져, “오랑캐의 장기를 배워 오랑캐를 제압한다”와 같은 군사적 주장만 ‘서구로부터의 학습’이라는 경전적 표현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미 『聖武

40) 『海國圖志』의 병서적 성격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시 민족-국가 건설에 애쓰고 있던 일본인들이 더욱 명확히 보고 있었다. 시오노야 세코(鹽谷世弘:1809~1867. 에도 말기의 유학자로 시오노야 토인(塩谷宕陰)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는 「翻刻『海國圖志』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원래 서양인이 지은 것으로, 사실들을 골라 전하되 정제로운 부분을 모았으니, 籌海, 籌夷, 戰艦, 火攻 등의 편들이 그것이다. 지리가 상세하고, 외국의 상황이 충실히 담겨있고, 병기·장비에 관하여도 충분히 다루어져 있으니, 가히 지키고자 한다면 지킬 수 있고, 화평하자면 화평할 수 있으니,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자질에 달렸을 따름이다. 이름은 지리지라 하였으나, 그 실체는 군사 대비의 교범이라 할 수 있다.”(鹽谷世弘의 『宕陰存稿』 4권). 난요 데켄(南洋梯謙)은 『『海國圖志』序』에서 이 책은 “천하 무사들의 필독서”라 칭하면서, 널리 간행 배포해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청나라 魏源의 『籌海篇』에는 議守, 議戰, 議款 등의 글이 있는데, 척척 들어맞아, 청나라가 이를 제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영국 외적들을 제압하고 러시아와 프랑스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吉田松陰 『西游日記』, 『野山獄文稿』 23쪽). 위 인용문들은 모두 蕭致治의 「魏源의 『海國圖志』와 중·일에 대한 영향(評魏源的『海國圖志』及其對中日的影響)」, 『魏源思想研究』, 344쪽을 재인용한 것으로, 汪暉의 『現代中國思想的興起』(上卷第2部) 第6章, p629 참조.

41) 魏源은 『道光洋艘征撫記』에서 이에 대해 이미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영국의 아편무역의 非사 무역적 성격과 군사적 후과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있었다. 이는 그가 만든 대응전략의 기본 전제였다.

記』에서 魏源은 이것이 다름아닌 선조들이 적을 제압하는 방법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선대의 일로부터 근래의 일에 이르기까지 책 속에 가르침이 있음(先朝近事, 典在冊府)”을 교훈 삼아, 이를 확장시켜 해양의 외적을 제어하는 데 쓴 것⁴²⁾이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 책 60권본의 原敍에서 저술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왜 짓게 되었나? ‘오랑캐로 오랑캐를 공격하고, 오랑캐로 오랑캐와 화평하고, 오랑캐로 오랑캐의 장기를 배워 오랑캐를 제압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책을 가지고 외적을 다룰 수 있는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 책은 방법의 기능적인 측면을 다룬 것이지, 본질적인 것을 다룬 것은 아니며, 유형의 방법에 관한 것이지 무형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⁴³⁾

방법의 기능적인 측면(兵機)과 본질적인 측면(兵本), 그리고 유형의 방법과 무형의 방법을 나누는 동력은 일종의 자각적 인식, 즉 ‘해국시대’에 중국과 서구의 대립이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님에 대한 인식의 판단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魏源은 淸 정부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는 청조의 역사를 통해 흥망과 성쇠의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국가를 다스리는 요책을 찾아내려 했다.

아편전쟁 이후로 ‘전쟁 아니면 화평, 화평 아니면 전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여론과 전략에 대해, 魏源은 ‘방어로써 전쟁하고, 방어로써 화평하는’ 전략과 전술을 제시했다. 전술상으로 말하자면, ‘방어’의 요체는 “첫째, 해양을 방어하는 것이 海口를 방어하는 것만 못하고, 해구를 방어하는 것이 강[內河]을 방어하는 것만 못하다. 둘째, 외지의 군대를 들여오는 것은 자체의 지역군을 훈련시키는 것만 못하고, 水師을 육성하는 것은 해상 민병대[水勇]를 훈련시키는 것만 못하다”⁴⁴⁾라고 적시했다. 魏源에 따르면 이 전략은 두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유럽 국가 특히 영국이 선진적인 전함의 우세함을 지니고 있고, 적과 아군 쌍방이 무기·장비·전투인원의 질과 양에 있어 현격히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대륙 제국은 육상전에 우수하고, 해양 제국은 해상전에 뛰어나다. 중·영 간의 전쟁은 반드시 ‘방어’가 중심이 되어야 하되, 지리적 전략으로 보자면 이른바 ‘방어’ 중심이라는 것은 또한 육상전이 해상전에 대응하는 기본 방식이다.⁴⁵⁾ 「議守」上의 끝부분에서, 魏源은 방어로 공격한 수많은 전례를 발견해

42) 이 점에 대해 가장 먼저 주목하였던 것은 徐光仁의 「試論魏源向西方學習的思想」(『南師范學院學報』, 1981年第2期)이었으며, 또한 이는 楊慎之, 黃麗鏞 編 『魏源思想研究』(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7, 125쪽)에서도 볼 수 있다.

43) 「海國圖志·敍」, 『海國圖志』 p68.

44) “방어로써 전쟁을 한 연후에 外夷가 우리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일컬어 ‘以夷攻夷’라 한다. 방어로써 화평을 한 이후에 외적이 우리의 규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일컬어 ‘以夷款夷’라고 한다.” 「籌海篇·議守」上.

45) 중국은 화포를 연안에 정렬할 때, 방향을 고정시켜 놓고 있는데, 만일 외해의 적을 맞이 하게 된다면, 영국의 군함은 진퇴가 기민할 뿐만 아니라, 규모가 매우 크고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요해처(돛대와 배머리)를 맞추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강으로 끌어들여 그 측면으로부터 공격해야만 비로소 효과가 있다. 이러한 원리는 화공에도 또한 적용할 수 있다. 광활한 바다 위에서, 불 붙인 배로 습격하여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魏源은 세 가지 전투를 자신의 전략 전술에 참조사례로 삼고 있다. 첫째는 베트남이 영국 함선을 강으로 유인하여 대거 격침시킨 사건이다. 그 다음으로는 梁化鳳이 육상전의 방식으로 장강 연안에서 鄭成功의 수군을 불잡아두었던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三元

이 전술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려 애썼다.⁴⁶⁾ 魏源이 주장한 육상전으로 해상전에 대응하는 전략은 서구 전략가의 견해와 대조해 보더라도, 그가 중국과 서양의 군사 전투의 요체를 장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략과 전술 면에서 아편전쟁을 근거로 해서 이뤄진 魏源의 전략 분석은 정확했다고 보여진다.

육상전으로 해상전에 대응하는 방식은 魏源의 용병술을 결정했다. 이것이 그가 「의수」下에서 논한 현지 군사 양성(就地練兵)의 방법, 즉 군민 연합의 방식으로 ‘침범한 적을 반격’하는 것이다. 그는 백성을 힘들게 하고 재산을 축내면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군대 파견(往來調兵)의 방법을 반대하고, 현지에서 병사를 모집할 것을 강조하였다. 육상전은 ‘풍토에 익숙하고 [服水土]’ ‘지리에 밝으며[熟道路]’, ‘집안을 지켜야 하는[顧身家]’ ‘토착군대’를 필요로 한다. 강이나 근해에서의 작전 역시 물길에 익숙한 현지의 수병을 모집하는 것이 상책이다. 아편전쟁 기간에 영국군은 청나라 군에 의해 해산된 수병들을 대규모로 고용했다. 그들은 현지 상황과 군사 시설에 익숙한 영국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로 인해 魏源은 현지 군사 육성을 위해 무기를 든 백성, 담배나 소금 밀거래상, 해적과 토비 등을 모두 지방 무장에 편입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으로는 군량을 아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영국인에게 매수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또한 부수적으로 지방 치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⁴⁷⁾

魏源은 『海國圖志』의 「原紋」에서 「籌海篇」에 대해 “방어함으로써 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방어함으로써 적과 통상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적들 간 모순 갈등을 이용해 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고, 기획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폐단을 도출한다.”⁴⁸⁾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魏源은 아편전쟁의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다. “적과 맞서 싸우는데 적의 형세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이해득실 차이는 백배에 달하고, 적과 소통함에 있어서 적의 사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이해득실 차이 역시 백배에 달한다.”⁴⁹⁾ 그래서 魏源은 인민들이 세계와 자기의 상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海國圖志』를 저술했다. 魏源은 저술 과정에서 서양, 특히 영국은 중원보다 낙후한 여타의 ‘오랑캐(夷賊)’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들의 제도문화와 器物은 중국보다 앞서 나갔기 때문에, 수모를 당하지 않게 힘을

里에서 분분히 일어난 의병들이 “오랑캐 두목(夷酋)을 포위하여, 오랑캐 장수(夷帥)의 목을 베고, 오랑캐 병사(夷兵)를 섬멸하여” 적을 제압하고 승리하였던 조건을 참조사례로 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차근차근 진영을 구축하고, 방어로써 전투에 임하는 방법을 사용한” 구체적인 전투 사례였다.

46) 예를 들자면 청조는 미얀마 수비가 엄중하여 공격 점령에 실패하였고, 러시아는 적을 유인하여 깊이 침입하였으며, 천시와 지리를 이용하여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차례로 격파하였다. 또한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육군의 절제로 한번 승리하였고, 수상전에서의 유인 매복으로 한번 승리하여” 영국군을 격퇴하였다. 후자는 중국의 전통적인 속국이 침략을 격퇴시킨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는 전통 조공관계를 재건하여 서양 군사 정복에 대항하자는 魏源의 전략 사상에 복선을 제공해주었다 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런 예의 기본 함의는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긴(以弱胜强) 역사적 경험, 그리고 내륙에 의지하여 외래의 공격과 침략을 격퇴한 역사적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籌海篇·議守」上.

47) 「籌海篇·議守」下, 『海國圖志』 p92.

48) 『海國圖志』「原紋」, 『海國圖志』 p67.

49) 『海國圖志』「原紋」, 『海國圖志』 p67.

길러 적들의 침략에 대항하려 한다면 우선 반드시 스스로가 낙후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서양을 따라 배워야만 중국이 불패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여겼다. 公羊學의 ‘變易觀’과 經世思想으로부터 이러한 결론을 얻어냈다는 점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公羊學에서는 ‘夷’와 ‘夏’는 근본적인 경계가 없다고 보는데, 차별점이라면 문명과 도덕의 진화 수준이라 볼 수 있다. 夷賊은 諸夏로 진화할 수 있고, 諸夏는 夷賊으로 후퇴할 수 있다. 이러한 변증법적 관점에서 “오랑캐와 중국의 경계를 엄중히 방비(夷夏之防)”⁵⁰⁾하자는 고지식한 전통 관점에 비교해 보자면 아주 진보적이다. 그래서 魏源은 “외부 오랑캐를 제압하고자 하면 먼저 반드시 오랑캐의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오랑캐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자 한다면 먼저 譯官을 설치해 오랑캐의 책들을 번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변방수비의 인재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반드시 온 마음을 모아 변방 업무를 감독하고 고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⁵¹⁾라고 제의했던 것이다. 그는 중국과 영국의 상호이해 수준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중국은 “이미 2백년이나 통상을 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영국이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그 국가의 이합집산도 알지 못”한 반면, 영국은 “英華書院을 열고 중국인을 교사로 모셔 와서는 한자와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의 經史子集과 지도책도 출간했다. 그 결과 언어문자 상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다. 한 마디로 중국의 국내 사정의 허와 실을 훤히 꿰뚫고”⁵²⁾ 있다. 중국에 영국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튼튼한 배와 정밀한 대포에 패배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魏源은 이러한 결론을 얻어냈다. 오랑캐의 장점을 잘 배울 수 있는 자가 오랑캐를 능히 제압할 수 있다. 외부 오랑캐의 장점을 배우는 데 서툰 자는 외부 오랑캐에게 제압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오랑캐의 장점을 배워 오랑캐를 제압한다(師夷長技以制夷)”라는 한마디 구호로 결론을 포괄했고, 이 구호는 중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것이 곧 중국이 서양으로부터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지침임을 상징하기도 한다.

“오랑캐의 장점을 배워 오랑캐를 제압한다”라는 구호에는 師, 長技, 制夷 라는 세 가지 개념이 상호연관되어 있다. 師란 ‘따라 배운다’는 뜻이고, 長技란 ‘중국을 능가하는 상대방의 장점’이며, 制夷란 ‘침략에 대항한다’는 뜻이다. 魏源이 파악한 바의 오랑캐의 장기는 즉 전함, 화기, 군사양성 및 훈련법 등 세 가지였다. 魏源이 이 세 가지를 명확히 한 것은 아편전쟁에서 친히 겪은 체험으로부터 얻어낸 결론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은 배와 함포가 서양 오랑캐의 선진기술인 줄은 안다. 하지만, 서양 오랑캐들의 선진기술이 비단 배와 함포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모른다.”⁵³⁾ 영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찌 오로지 배의 견고함과 대포의 예리함에만 기댄단 말인가? 절제되고 훈련된 지휘체계가 없었다면 배나 무기가 있다 한들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리라”⁵⁴⁾ 라고 말했다. 비록 중국에 수많은 병사와 군

50) 고대 중국의 화이관에서 민족경계를 엄격히 함으로써 華夏를 존중하고 기타민족을 비하해야 한다는 이론. 華夏가 아닌 이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방비하고 나아가 통혼도 금지해야 한다. 華夏의 선진문화가 이족 오랑캐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오랑캐의 불량한 기풍에 감염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논리.

51) 『海國圖志』「籌海篇·議戰」, 『海國圖志』 p99.

52) 『海國圖志』「籌海篇·議戰」, 『海國圖志』 p101.

53) 『海國圖志』「籌海篇·議戰」, 『海國圖志』 p103.

54) 『海國圖志』「籌海篇·議戰」, 『海國圖志』 p104.

대가 있지만 만여 명밖에 안되는 영국군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魏源은 군중의 무절제가 관건 이기에 조선과 대포제조 외에도 養兵練兵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魏源은 오랑캐의 장점을 따라 배우기 위한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면서 우선 서양의 배와 대포를 구입해 水戰과 火戰을 연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에 또 서양인을 조정의 관원으로 들였던 강희시기를 모방해 외국의 장인들을 초빙해 광둥에서 공장을 세우고 배와 대포를 제조하고, 이들을 부리는 기술도 같이 배울 것을 주장한다. 이래야만 “서양의 선진기술을 모조리 중국의 선진기술로 체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군용과 민수용의 결합을 주장하면서 “전함은 내구연한이 있지만 선박을 건조해 판매하는 데는 연한이 없고, 대포는 (예산상) 수가 제한되어 있지만 만들어서 파는 데는 수량 제한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각종 도구나 기계 제작을 주장했다. “백성들의 삶에 유용한 것이라면 어느 것이건 여기서 제작할 수 있다.”⁵⁵⁾ 魏源은 이렇게 하면 “1년이면 습득할 수 있고 2년이면 정교해 질 수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서양의 선진기술을 죄다 가져와 중국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⁵⁶⁾ 라고 믿었다.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한 그는 서양의 선진기술을 학습한 이후 “그들의 장점에 근거해 사용하고 그리하여 곧 그들의 장점에 근거해 그들을 제압한다. 이러한 기풍이 일어나기만 하면 동시에 지해의 날도 출현해, 비로소 바야흐로 동해의 백성들이 서해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음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⁵⁷⁾라 믿었다.

魏源의 “오랑캐의 장점을 따라 배우다”라는 주장은 주로 중국을 침략하는 서양 자본주의에 대한 제의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대중적 대책이라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본 탁월한 식견이 담겨있는 개혁적 經世之道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魏源의 주장은 그가 전쟁 전에 보여주었던 사회개혁 사상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래서 “오랑캐 제압하기(制夷) - 오랑캐 알기(悉夷) - 오랑캐 따라 배우기(師夷)”라는 魏源의 제의가 나오자마자 경세파를 비롯한 청말 지식인들의 호응을 얻어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렇게 해서 “서양 따라 배우기”와 “구국의 진리 찾기 풍조”가 흥성하기 시작했다. 일부 선진적 중국 지식인은 魏源의 “오랑캐의 장점을 배워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사상을 따라 근대민족국가 건설의 길에 나섰다. 당시 애국주의자들의 심금을 울렸던 魏源의 이러한 개혁사상이야말로 중화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유일하고 정확한 길이었을 지도 모른다.

5. 中國夢의 萌芽

아편전쟁의 패배로 청말 사회는 대단히 큰 충격에 휩싸였고 사회변동의 향방이 해양에서 내륙으로, 남에서 북으로의 遷移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 운동의 방향은 청조의 통일운동에 맞물린 영토확장 정책, 서북 邊界에 대한 유효한 통제 강화의 필요성, 동남 해안 지역에서의 아편무역과 군사 압력 등 다양한 요인에 귀결된다. 따라서 단순히 해

55) 『海國圖志』「籌海篇·議戰」, 『海國圖志』 p102.

56) 『海國圖志』「籌海篇·議戰」, 『海國圖志』 p102.

57) 『海國圖志』「籌海篇·議戰」, 『海國圖志』 p103.

양으로부터의 압력과 공업화 등 서구로부터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만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聖武記』에서 서북에 대한 청조의 무력 실천을 찬양하던 魏源이 『해국도지』에서는 영국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에 대한 경계와 이에 대한 방비책에 대한 깊은 연구 결과를 내어 놓은 것을 볼 때, 해양세력의 에너지가 매우 컸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양시대는 풍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양 군사력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 정치와 경제의 권력 관계야말로 해양시대의 주요 특징이라 여긴다. 해양력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해양시대의 도래를 정당화했던 알프레드 마한(Alfred Thayer Mahan)의 연구 성과⁵⁸⁾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해군력 각축을 통한 국가 간의 전쟁이나 해양 무역을 통한 국가의 부강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해양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빠르고 편리한 수로 교통과 운송의 발전은 각국이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공동의 해양항로에서 경쟁하는데 있어서, 상업운송에 대한 군사적 보호와 해상운송로 확장을 보장할 수 있는 군사력을 불가피한 요소로 만들었다. 해양 패권 국가는 어느 지역이나 자유롭게 군대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해양을 지배할 능력이 없는 국가는 군사적으로도, 또한 상업적으로도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해군력에만 의존한다면 결국은 과도한 군비경쟁에서 중국이 끝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따라서 군사력 경쟁에서 무력 사용을 억지하는 수단으로서의 병력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군사행동이 야기되지 않는 통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평화로운 경제활동이 보장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그의 학문적 배경이 크게 작동했을 것이다. 즉, ‘海國 시대’를 맞이해, 대륙의 內·外, 夷·夏의 절대적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국제 경쟁 속에서 중국 내부의 동일성을 재구축한다는 의도는 곧 今文經學의 內·외관의 발현이었다. 대륙 중심적 사고로 해양을 경시해왔던 국가 정책을 개선해 해양 군사 공업을 발전시켜서 민간 산업과 기타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도록 하고, 軍民 일체의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다름아닌 경제사상의 발현이었다. 나아가 해양 군사력의 재건을 통해 국가의 공업화와 상업 시스템의 발전을 추동하고, 남양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지는 것은 청조의 자존심과 국가발전에 기초가 된다는 사상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 각국이 처한 상황이나 그들의 장기를 따라 배워야 한다고 여겼다. 이런 점은 古文經學을 추종하던 청말의 反滿혁명론자들은 사고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이었다. 금문경학파들이 공유했던 ‘夷夏無分’의 정치 관점이 아니었더라면 탄생하기 어려웠을 주장이다. 나아가 무역(通商)에 대한 강조, 식민주의에 대한 이해, 선거제를 수용하는 서구의 민주공화제, 군수공업을 포함한 공업 발전 등은 새로이 떠오르는 권력 관계에 대한 실천적 준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과 실천은 아마도 부강한 중국에 대한 魏源 式 근대기획이자 170년 전의 ‘中國夢’은 아니었을까?

58) 마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1660~1783(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김주식, 책세상, 1999, 서울.

【參考文獻】

- 魏源 著, 李巨瀾 評注(1999), 『海國圖志』, 中州古籍出版社, 鄭州.
- 汪暉 著(2004), 『現代中國思想的興起』,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北京.
- 『魏源年譜』
- 최희재(2015.1), 「청대 중엽 西北史地學 발흥의 배경」, 『東洋學』(第58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 최형근(2007), 「동서양 문화의 他者認識에 관한 연구」, 강원대 박사논문.
- 방동인(2001), 「세계 지리지식의 확대와 지도」, 『한국지도의 역사』, 신구문화사.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한글	海國圖志, 鴉片戰爭, 海洋勢力, 通商, 軍事力
	영문	<i>Haiguotuzhi (Illustrated Treatise of Maritime Nations)</i> , Opium War, naval powers, trade, military forces

A study on Wei Yuan's recognition of the world on case of *Haiguotuzhi*

Kim, Tae-Man

In the 19 century, the Western naval powers including England overwhelmingly rushed to China since their earlier aggression to India and the other parts of Asia. The English merchants armed with naval forces illicitly sold opium to China to regain its trade balance from the Chinese market. Consequently, China rapidly went to be drawn into the world economic system which was leaded by England and this unstable shift of China caused the collapse of the Qing dynasty at last.

Then Wei Yuan, the patriotic intellectual of the late Qing, believed that the reason of the invasion of the Western powers is due to their needs of trade with China and then developed his idea of the benefits from the trade between China and the West could be shared in the mutually beneficial and equal international trade.

However, Wei Yuan felt that his belief would be realized only in the condition of China's possession of unbending force to that of the West. Therefore, He developed his idea of China would need to equip with strong defense abilities, well trained armed forces and armaments to protect itself from the West and he also came to realize the necessity of learning from the West which would be able to do so only after getting over from China's superior understanding to the West.

This is the idea of the 'Yi-xia concept(夷夏論 the concept of differentiation of Non-Han and Han Chinese)' which had sprouted from 'the studies on Jingshi(經世學 the studies on practical aims of political and social guidance)' and later the Yi-xia developed into his philosophical thoughts.

Wei Yuan insisted that China should learn from the West but maintaining its sense of being superior to it. These thoughts became Wei Yuan's motivation of writing the book, 'Haiguotuzhi(海國圖志 Illustrated Treatise of Maritime Nations)', in which he insisted to learn from the West so as to protect China from outer threats.

From the understanding of Wei Yuan's patriotism to China with his idea of 'Yi-xia concept' and his academic tendency of the New Text school(今文經學派), we can find the early concept of nowadays Chinese dream connected with the idea of the modernization movement of China.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태만 / 金泰萬 / Kim, Tae-Man
	소 속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동아시아학과
	Em@il	ktm2170@gmail.com
	주 소	(생략)
	전화번호	(생략)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5년 5월 11일
	심 사 일	2015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22일